

개인의 정원이 공공에 개방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 민간정원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Opening Private Gardens
- Focusing on the Korean Private Garden System -

조성아*, 성종상**, 이보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사)푸르네정원문화센터 정원사

Cho, Seong-ah*, Sung, Jong-Sang**, Lee, Bo-Hyun**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ardener, Prune Garden Culture Center

Received: October 8, 2025
Revised: November 18, 2025 (1st)
December 1, 2025 (2nd)
Accepted: December 1, 2025
3인익명 심사됨

Corresponding author :
Jong-sang Su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정원이 공공에 개방되는 과정을 근거 이론적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정원주 2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고 정원이 공공에 개방되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인과적 조건(정책적 권장, 개인의 성취감,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맥락적 조건(정원 특성, 가족 태도, 지역사회 분위기, 지자체의 적극도)은 중심 현상(애착심과 자부심 등 긍정적 경험과 방문객 증가, 타인의 평가로 인한 피로감 등 부정적 경험이라는 양가적 경험)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 정원 관련 네트워크들, 개인 성향 같은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여 정원주들의 전략(유료 전환, 사전 예약제, 프로그램 운영 및 생상품 판매, 마을만들기 연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정원주들의 정체성 확장, 사회적 인정 경험, 공동체 연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관리상의 어려움과 방문객으로 인한 피로감이라는 미해결 과제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쟁점들은 최종적으로 "사적 공간의 공공화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로 통합된다. 이는 정원 개방이라는 것을 단순한 개인적 선택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적 공간이 공적 자원으로 전환되는 동적인 사회적 과정이자 정원주들의 균형적 조율의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정원 제도라는 단일사례를 연구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추후 국내외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사적 공간의 공공화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더해 본 연구는 민간정원이 제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그 제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사적공간, 공공화, 근거 이론적 방법론,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of opening private gardens to the public using grounded theor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6 garden own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A paradigmatic model of the garden-opening process was developed. The results revealed that causal conditions (policy recommendations, personal accomplishments, and expectations of support) and contextual conditions (garden characteristics, family attitudes, community atmosphere, and local government involvement) shape central phenomena (positive experiences such as attachment and pride, and ambivalent experiences such as increased visitation and fatigue due to evaluation). Intervening f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 support, garden-related networks, and individual personality, influence garden owners' strategies (e.g., switching to paid services, pre-registration, program operation and product sales, and linking with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ese strategies resulted in positive outcomes for garden owners, including an expanded sense of identity, social recognition, and community solidarity. However, challenges remain: management challenges and visitor fatigue. These categories ultimately converge into the core category of "the process of publicizing private space." This suggests that garden opening should be viewed not simply as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but as a dynamic social process where private space is transformed into a public resource, a process requiring balanced coordination among garden owners. Whil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examines a single case study of Korea's private garden system, further analysis of similar cas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ould lead to meaningful research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izing private space. Furtherm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data reflecting the voices of those on the ground, given the rapid growth of private gardens since their institutionalization. Examining concrete responses in the field after institutionalization will not only enable evaluation of the system but als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implementing similar policies in the future.

Keywords: Private Space, Publicization,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개인 정원’이라는 사유 공간을 공공에 오픈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개인 정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인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어 왔다. 영국의 national garden scheme은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의 많은 중산층 정원을 개방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다. 영국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일본, 호주 등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Benfield, 2013). 그중 일본 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픈가든 활동이 일어나며 경관 운동으로 확장되어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마을 내의 여러 개의 작은 정원들을 엮어서 함께 오픈하는 오픈가든 행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자금을 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한다(히라타 후지오와 손용훈, 2015). 또한 관광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개인의 정원을 소유자가 개방함으로써 기술을 입증하고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사회적 접촉도 일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Lipovská, 2013; Cakovska, 2018).

한편, 한국에서는 2013년 순천만 국가 정원 박람회를 기점으로 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늘었다. 2015년, 정원에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면서 국가 정원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때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민간정원’이라는 제도와 법률적 개념도 함께 등장했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도에 생긴 한국의 ‘민간정원’ 제도는 개인의 재산인 정원을 공공에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한 법안으로 2024년까지 158개의 민간정원이 제도에 의해 등록되어 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사유 공간을 공공에 오픈하고 공적으로 활용하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공적 녹지인 공원에 비해 ‘정원은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사적 공간을 공공에 개방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다.

이전의 ‘민간정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조성아와 성종상(2019)은 민간정원 초기 민간정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을 파악했고, 이정 등(2021)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의 입지와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22)은 민간정원 초기, 제도에 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원 네트워크 제도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보현(2024)은 민간정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해 논하였고, 홍승훈과 이혁재(2025)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발굴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지 특성과 활성화, 역할 및 평가지표 등 민간정원 자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으나 정원주들의 경험 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는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정원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주들의 경험의 구조적 과정을 탐구하고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원주가 사적 공간인 정원을 개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개방 과정에서 정원주가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무엇인지, 그 경험 속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정원이라는 사적 공간의 공공화에 대한 고찰

정원(庭園, garden)의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뜻한다¹⁾. 서구에서 정원을 뜻하

는 garden, garten, jardin의 어소 'gher'는 공간을 둘러싸는 행위, 또는 그렇게 둘러싸인 공간을 말하는데, 정원을 의미하는 한자어 '園'의 부수자인 큰 입 '구'(口)도 에워싸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gher'와 마찬가지로 위요 공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정원의 원형은 닫혀있고 사적인 '위요(圍繞)공간'으로서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황기원, 1987).

정원과 달리 공원(公園, public park)은 19세기 후반 유럽의 근대화 과정 중 생겨난 일종의 “발명품(황주영, 2014)”이다. 공원은 19세기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도시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 이때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원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왕족이나 귀족 등의 지배층이 소유한 사냥터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바뀌었는데²⁾, 사적 공간이 공적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공원의 공공성(公共性)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원의 탄생은 공공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은 공공(公共)적이어야 하는가.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은 학문에 따라 약간 다르게 논의되어 왔는데, 그 개념을 간략히 규정하자면 무언가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는 공공(公共)의 개념을 영어의 public에 대응하게 보았다. 이는 사(私)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을 공공성의 실행 주체에 놓는다(차동욱, 2011). 하지만, 하버마스(2001)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근대 계약 사상으로 인해 共의 역할이 축소되었을 뿐,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공과 共으로 이루어져 public과 함께 commo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대 공공성 연구들은 공공(公共)에서 공(共; 함께 공, common)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있다. 단순히 공(公)과 사(私)의 대립을 넘어 공(共)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이병택, 2011; 차동욱, 2011; 조승래, 2014; 이동수, 2015; 임의영, 2018; 최태현, 2019; 신수임, 2020). 현대에서 공공성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모든 사회적인 주체를 포함한다. 또한 수평적, 지역적, 협력적인 공(共)의 의미가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되며 공(公)은 이를 지원하고 확산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

조대엽(2012)은 공공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을 제시한다. 공민성(公民性)은 공적 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누가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며, 공익성(公益性)은 자원의 사회적 유용성과 공유 정도를 의미한다. 공개성(公開性)은 사회문화적, 행위적 차원에서 공론장의 개방성을 가리킨다. Schindler(2017)는 공공 공간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누가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 공간은 대중에게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적 공간이라도 그 소유의 주체보다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다면 충분히 공공성을 띠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런던의 스퀘어 정원은 사적 정원이 공공성을 획득한 대표적 사례이다. 19c 전후로 런던 도심의 스퀘어³⁾ 정원들은 공공에 개방되면서 도심에 경관을 제공해 주고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처음부터 공공에 개방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거의 모든 공간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주변 세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Olsen, 1976)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19c 이후 런던의 인구는 급격히 늘었고, 스퀘어 정원은 도시개발의 위기에 놓였다. 녹지가 부족했던 도심에서 개방 공간에 대한 접근은 특권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권리로 점차 여겨졌고, 공공이 개입하여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Town Gardens Protection Act 1863」, 국민 건강을 위해 정원의 공공 접근 및 이용을 장려한 「Public Health Act 1875」, 도심에서 열린 공간의 범주를 확장하고 정원의 공공 접근을 장려한 「Open Spaces Act 1906」가 제정되고 개발로부터 스퀘어를 보존하는 법 「London Squares Preservation Act 1931」의 제정까지 이어졌다(Lawrence, 1993). 이 제도는 런던 내 460개의 스퀘어, 정원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관리해 공공 개방을 장려하였다. 결국 스퀘어 정원은 시민의식 성장과 제도로 인해 개발로부터 보호되었으며 동시에, 일부 정원은 공공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김현준, 2023). 현재는 오픈 가든 스퀘어 위켄드(open garden squares weekend)와 같은 행사를 통해 매년 더 많은 개인 정원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녹지가 부족한 도심 내 정원의 경우, 경관적, 환경적 이유로 공공 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도심 정원이 아닌 개인 주택의 정원을 관광 및 자선의 목적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NGS(National Garden Scheme)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가든’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원 개방 행사이다. NGS는 1927년 퀸즈 간호 연구소(Queen's Nursing Institute)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우수한 정원 소유주들에게 하루 동안 일반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모금된 기금을 연구소에 기부하도록 요청하였던 프로그램이 지금의 오픈 가든의 시초가 되었다. 1927년 당시 약 600개의 정원이 개방되었고, 2024년에 약 3,500개의 정원으로 늘어났다. 기부금도 2024년 총 7,400만 파운드를 넘어섰다⁴⁾. NGS는 그들의 비전을 ‘모든 사람이 정원에 접근할 수 있고, 정원이 주는 건강, 웰빙, 삶의 즐거움에 대한 이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정원의 이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과 정원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NGS에서 정원 개방을 결정한 정원 주인들은 자선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하며 공동체 형성 등을 할 수 있는 이점에 정원을 개방하고 있다(Čakovská, 2018).

국내에서는 2013년 세계 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순천만정원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법률상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정원’ 개념이 생겼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사적·내밀한 공간이었던 정원이 국가가 관리하거나 대중에 개방하는 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민간정원 제도는 특히 개인 정원의 공공 개방을 장려하며 사적 공간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중들은 개방된 정원에서 다양한 경관을 누리고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은 공적자금을 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2 조경 연구와 근거이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제적 탐색을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하는 것에 최적화된 분석 방법(Glaser and Strauss, 1967)이다. 1960년대 기존 질적 연구의 객관성에 회의를 품었던 사회학자들에 의해 대두되었고,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 간호학을 시작으로 여러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최귀순, 2005).

기존의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수반한 경험들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나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거이론은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사실관계를 이론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최지영, 2012)는 장점이 더해진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이론은 연구자에게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 인간의 행위(ac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또한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해 이론화가 가능하다(Stern, 1980)는 특징이 있다.

권향원(2016)에 따르면 근거이론은 연구의 산출물로 ‘이론(theory)’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의 전통들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지닌다. 근거이론은 질적 코딩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코딩을 통해 ‘이론적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방법론적으로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의 분석, 개념적 속성 분석, 사건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에 적합하다.

질적 코딩(qualitative coding)이란 수집된 질적 자료로부터 연구자가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단어, 구문, 문장, 문단 등 의미요소(meaning segment)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하여 개념적 의미로서 코드(code)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환원하는 자료분석 작업을 뜻한다(Miles and Huberman, 1984; 김영천, 2011; Saldaña, 2012; 권향원, 2016). 이후 연구자는 식별된 코드를 바탕으로 공통된 코드들을 유형(category)으로 범주화하거나, 식별된 유형들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추상수준의 상위유형으로 범주화하는 등 유형화(categorization) 작업을 수행한다. 만약 코드들 상호 간의 인과적 관계, 공분산 관계, 속성적 관계, 과정적 관계 등 논리적 관계성(relationship)이 파악되는 경우 이러한 관계구조를 체계화(systemization)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논리적 분석활동을 부가하게 된다(Holton, 2007; 권향원과 최도림, 2011).

근거이론은 Glaser and Strauss(1967), Strauss(1987), Strauss and Corbin(1990), Glaser(1992)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들이 있으며, Strauss와 Glaser의 방법론을 종합하여 제시한 Charmaz(2006)의 연구 방법 등이 존재한다(Creswell, 2015). 그중 Strauss(1987)는 연구자가 코딩의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해석적 틀로 삼아 코드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분석의 모호성, 연구자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trauss(1987)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회현상을 6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속성,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이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권향원, 2016). 이러한 생각은 이후 Strauss and Corbin(1990; 1998)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다. 국내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Strauss and Corbin의 방법론이 흔히 활용된다.

한편, 조경 연구에서도 여러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2014년 이차희 등(2014)이 농촌관광 중개 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특성과 역할을 모색하였던 연구를 시작으로 공원이나 조경 작품 설계 과정과 관련된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홍윤순과 박재민(2016)은 광고호수공원 설계 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 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으로 살펴보고, 김은영과 홍윤순(2019)은 완공된 경의선숲길 공원 중 보완설계를 통해 준공된 연남동 구간의 설계에 중추적으로 참여한 설계자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박성욱 등(2022)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의 구현 과정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인터뷰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조경이 관련 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과 더불어 시공 품질관리를

위에 요구되는 메커니즘을 논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 방법론은 거주민의 인식이나 방문객들의 경험, 주민들의 일상사 연구와 같은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이차희(2017)는 근거이론 개방 코딩을 통해 발화 내용을 분석하여 거주민이 주요하게 인식하는 경관 대상과 그 인식 요인, 인식 감정을 밝혔고, 김지나(2019)는 DMZ 접경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특성과 방문객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서준원과 조경진(2021)은 DMZ 접경지역 철원 민북마을 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일상사를 수집하여 근거이론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상 경관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 문화경관으로서의 일상 경관을 분석하여 DMZ 인근 철원 진북마을의 경관적 특성을 논하였다. 그 외에도 김우주 등(2018)은 지역주민들이 일상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근거이론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민간정원 제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들고 운영하는 정원을 산림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015년 1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원법으로 바뀌면서 2015년 9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제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정원’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민간정원’이라는 법적 개념도 함께 만들어졌다. 정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법률상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구분된다. 민간정원은 2024년 기준으로 158개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인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산림청에 등록되는 ‘민간정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적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적 기준은 정원 중 40% 이상이 녹지여야 하고,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력 기준의 경우, 등록하는 정원의 전체 면적이 10만 m²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은 2021년, 2024년 각각 신설 및 개정되어, 그 이전에 등록된 정원들은 이와 같은 등록 기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민간정원도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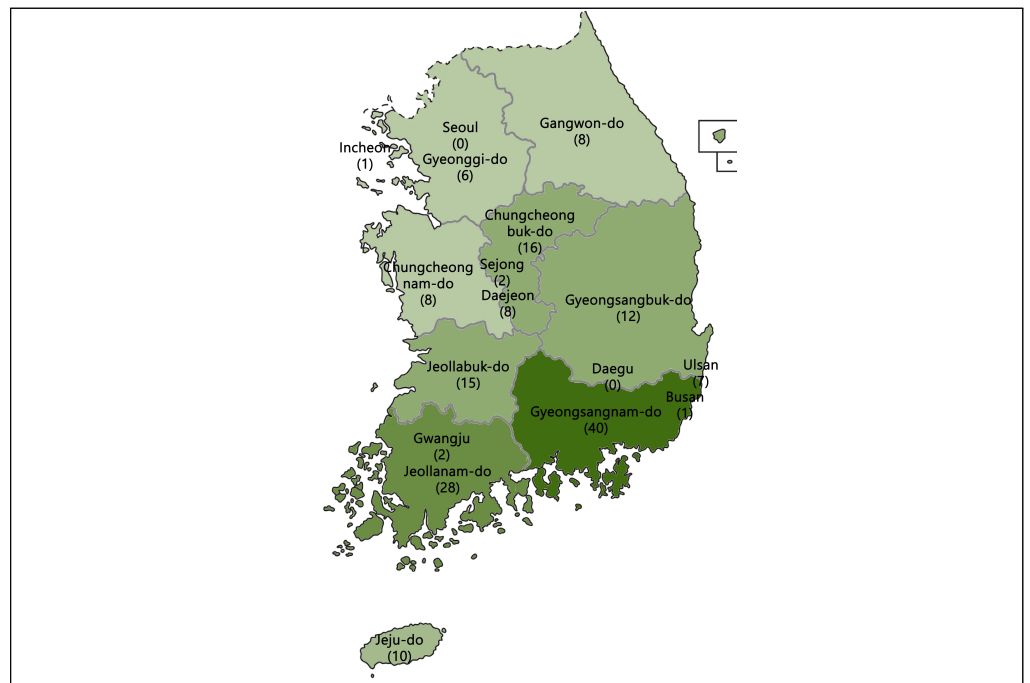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private gardens

민간정원의 등록 및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Table 1 참조). 등록된 정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이 되거나 장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에 해당 사항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이 민간정원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수목원 관리원’이 2021년 6월 정원법의 일부 개정과 함께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중 민간정원 관련 업무도 해당되는데 민간정원에 컨설팅을 해주거나 활성화 지원, 홍보 지원 등이 있다. 신규 등록하는 민간정원에 표준 로고가 박힌 현판을 보급하거나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주며 식물 분양, 가든 매니저 교육 지원도 하고 있다(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5).

민간정원에 등록된 정원주는 정원법에 의거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민간정원들이 실제 입장료를 받고 있다.

3.2 연구방법

3.2.1 인터뷰 대상자 및 조사과정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은 민간정원 제도에 등록된 정원의 주인 또는 매니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만들고 운영 하는 정원만 선정하여 진행하였다⁹⁾. 데이터는 2018년 6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 수행된 문헌 및 인터뷰에서 1차 수집되었다. 2018년 당시 총 25개소였던 민간정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정원 중 인터뷰에 응했던 정원주 9인의 데이터가 분석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그리고 2024년, 민간정원에 등록된 정원이 158개로 6배가 넘게 늘어나 2018년의 자료로는 해당 주제를 논하기에 한계가 있어, 202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2차로 보완되었다. 2차

Table 1. Registration procedures for private gardens

Registration procedures	Subject	Contents
Registration target	Garden ow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ly created or existing gardens
Consulting	Garden owner →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given a cons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rden cre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s Private garden registration guidance and consulting
Registration application	Gardener → Provincial govern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rden Registration Application
Examine	Official in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 of illegal activities Whether the green space exceeds 40% Whether the garden is open to the public User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and restrooms Whether a professional garden manager is assigned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Provincial governor → garden ow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rden registration certificate
Garden support	Directo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 director of garden management (Korea national arboret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private garden signage Support for education/promotional activities Garden manager training Garden plant donations Media outreach and brochure distribution Urban forest garden management support
Operational evaluation	Directo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Evaluation Committee: At least 5 experts Evaluation Criteria The garden'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uniqueness Appropriateness of it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acility safety and hygiene management Operation of experiential activity programs
Cancel registration	Provincial govern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case of false or illegal information

Source: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에 선정된 정원은 1차와 동일하게 법인을 제외한 개인 소유의 정원으로 개인이 만들고 가꾸고 지내고 있는 정원들만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정원의 주인은 온라인에서 찾은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모집되었고, 2차 선정 정원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는 Table 2와 같다.

3.2.2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설문지(Table 3 참조)를 기반으로 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정원이나 정원 내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동의를 얻은 후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전사되었다. 문헌 자료는 관련 뉴스 및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타 출판물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근거이론 중 Cobin and Strauss(1990)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론은 수집 자료를 분석할 때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그리고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과정을 거치고 패러다임 모델로 구조화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개방 코딩은 자료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범주화란 똑같은 현상

Table 2. Interviewee data

	No.	Gender	Age group	Year of gardening (years)	Area (ha)	Location	Role
1st survey	1	M	60s	44	3.4	Jeollanam-do	garden owner
	2	F	60s	13	0.1	Chungcheongbuk-do	garden owner
	3	F	70s	17	0.5	Chungcheongbuk-do	garden owner
	4	M	60s	-	3.3	Jeollanam-do	garden owner
	5	M	60s	19	0.8	Jeollanam-do	garden owner
	6	M	70s	33	3.2	Jeollanam-do	garden owner
	7	M	60s	36	1.3	Jeollanam-do	garden owner
	8	M	80s	74	4.3	Jeollanam-do	garden manager
	9	M	70s	48	1.8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2nd survey	10	M	50s	15	0.35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11	M	50s	4	0.3	Jeollanam-do	garden owner
	12	W	60s	30	0.41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13	M	70s	35	3.1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14	W	60s	10	4.7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15	M	80s	30	0.6	Gangwon-do	garden owner
	16	M	60s	-	2.3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17	M	70s	20	0.08	Gyeonggi-do	garden owner
	18	M	70s	35	3.6	Chungcheongbuk-do	garden owner
	19	M	60s	12	0.67	Chungcheongbuk-do	garden owner
	20	M	80s	64	0.5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21	M	70s	50	2.6	Jeollanam-do	garden owner
	22	M	60s	15	0.31	Gyeongsangnam-do	garden owner
	23	W	60s	10	0.33	Gangwon-do	garden owner
	24	W	60s	5	0.1	Daejeon	garden owner
	25	M	60s	20	0.8	Jeollanam-do	garden owner
	26	M	60s	-	0.9	Jeollanam-do	garden owner

Table 3. Contents in the interview survey phase

Major research contents	Interview questions
Rea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ason for gardening Reason why garden is open
Status and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us of garden use after opening Changes after opening garden
Prob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 or difficult thing after o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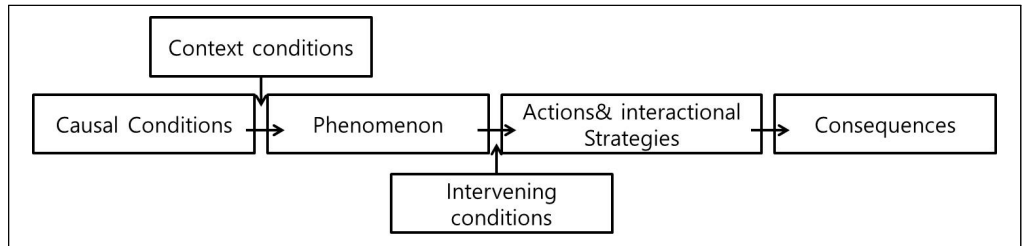


Figure 2. A paradigm model of ground theory
Source: Strauss and Corbin (1990)

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그룹 짓는 과정이다. 범주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에는 그 속성에 의거해서 하게 되며, 속성은 일정하게 차원화된다. 축 코딩은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관계 짓는 것이다. 즉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s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들을 나타내는 범주에 따라 연결된다.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킨 관계를 확인하며 범주를 더 정련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모든 범주가 하나의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다(최지영, 2012).

본 연구에서 코딩은 maxqda 2024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인터뷰 진술문은 총 10,413문단으로 3차례 반복적 코딩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면담 녹취록을 줄 단위로 분석하며 이를 붙이고 개념화, 범주화를 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복적 비교를 통해 범주를 분류하고 하위범주와 연결시켰다. 선택 코딩에서는 범주들 간의 반복적 비교 과정을 다시 수행하며 귀납적으로 추상화된 핵심 범주를 선정하고 핵심 코드 간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현상, 전략과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의 시각적 모형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Figure 3 참조). 코딩 과정 시 동료 연구자와의 수차례 논의와 확인 과정을 실시하여 연구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개방 코딩 분석 결과 236개의 개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방 코딩에서 236개였던 전체 개념은 선택 코딩을 통해 98개의 세부 개념으로 추려졌고, 이 세부 개념은 32개의 하위범주로 묶이고, 이것은 다시 17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이것으로 그린 관계 패러다임 모형은 Figure 4와 같다.

이 모형은 정원주들이 개인 정원을 공공에 개방하는 경험을 근거 이론적 접근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인과적 조건(정책적 권장, 개인적 성취감,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맥락적 조건(정원 특성, 가족 태도, 지역사회의 분위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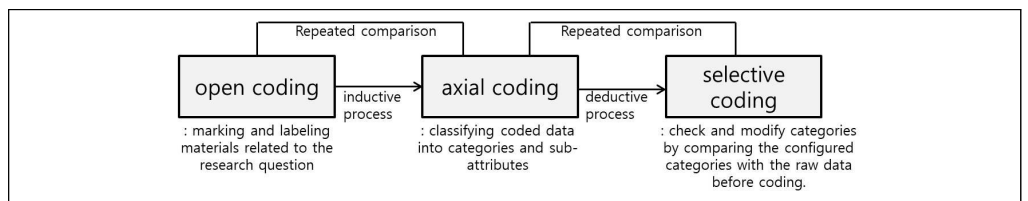


Figure 3.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Source: Yoo (2018)

Table 4. Concept categorization process

Concept	Subcategory	Category	Paradigm
Recommendation from a civil servant	Policy recommendations	Background of garden owner opening the garden	Causal condition
Expectations for the brand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round them	Personal achievement		
Good views			
Accomplishment and pride			
Want to ask for advice	Expectations for support		
Expectations human resource support			
Expectations for support			
Managed with family	Various gardens		
Suited to the environment			
Connected to old forests			
Interest in native plants			
The pursuit of the natural			
Unsupportive family	The attitude of the family	The attitude of the family	
Managed with family			
No one to pass it on to			
Support from the village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ty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ty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Local governments that are not interested	The level of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evel of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Proactive local government			
Pride in "private garden system"	Attachment and pride	Positive experiences	Phenomenon
Love and pride in plants			
Attachment			
Love and pride in gardens			
Pride in the garden I cultivated alone			
The reward of recognition			
Increased communication	Increased communication		
Impacting the community	Pride in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Impacting on local businesses/linked to the local economy			
Job creation			
Contribute to local revitalization	Hurt by others' evaluations	Negative experiences	
The hurt caused by people's opinions			
The difficulty of catering to public tastes			
Concerns about complaints			
Fear of feeling inadequate			
The burden of comparison	Fatigue due to increased visitors		
Inconveniences of visiting tourists			
Burden			
Privacy concerns			

Table 4. Continued

Concept	Subcategory	Category	Paradigm	
The difficulty of opening up	Fatigue due to increased visitors	Negative experiences	Phenomenon	
Inconvenient as it has become a tourist attraction				
Difficulties in managing visitors				
Fatigue due to increased visitors				
The difficulties of garden management	The hardships of labor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wild flowers				
The difficulty of managing alone				
Shortage of garden maintenance personnel				
Prefer low-maintenance gardens				
Damage problem	Garden damage			
Damage to the trail				
The reason it became a no-kids zone				
A structure that can only be maintained if there is income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problem				
The problem of no income				
High cost				
The problem of management costs				
The difficulties of free operation				
Difficult to operat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ourism	Problems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Danger due to lack of access road				
Problems with facilities such as restrooms				
Safety concerns				
Lack of parking lot problem				
The difficulty of promotion	The difficulty of promotion			
The burden of publicity				
Non-recognition of gardens on farmland	Legal issues			
Sharing negative experiences	Information sharing	Garden-related networks	Intervening conditions	
Affects admission fees				
Subsidy support	Support system	Local government support		
Consulting support				
Not much support				
Gardener of other gard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 gardener with a passive personality				
Concerns about commercialism				
Switching to paid service for economic reasons	Converted to a paid facility	Paid facility		Actions & interactional strategies
Switching to paid service to limit the number of people				
Forest commentary	Operate garden-related events	Garden-related events		
Farm stay				
Experiential learning				

Table 4. Continued

Concept	Subcategory	Category	Paradigm
Educational program	Operate garden-related events	Garden-related events	Actions & interactional strategies
Sales of products	Sell produce/local food, etc.	Goods	
Wildflower sales			
Local food sales			
Advance reservation system	Initiate reservations system	System change	
Paid service to limit the number of people	Transition to paid services		
Linked with village development	Linked to village	Linked to village	
Local food sales by villagers			
Pride in the garden	Expanding the identity of the gardener	Positive experiences	Consequences
Pride in gardening			
Confidence in the garden them cultivate alone			
The pride of recognition	Experience social recognition		
The village is transformed into a garden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Collaboration with local residents			
Hard work to manage garden	Continued hard management	Unresolved issue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Visitor fatigue	Visitor fati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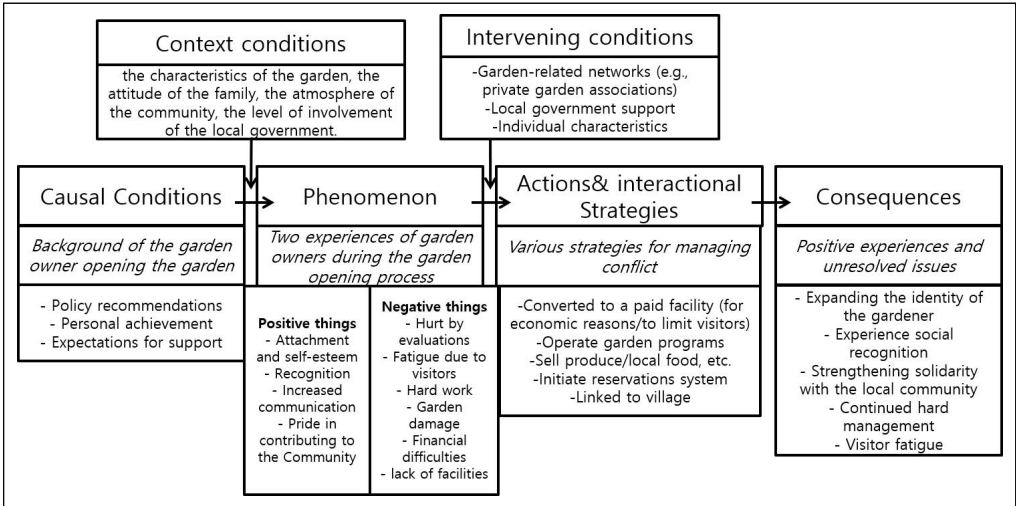


Figure 4. Paradigm model of private garden opening experience

자체의 적극성 차이)은 중심 현상(애착심과 자부심 등 긍정적 경험과 방문객 증가, 타인의 평가로 인한 피로감 등 부정적 경험이라는 양가적 경험)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 정원 관련 네트워크들, 개인 성향 같은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여 정원주들의 전략(유료 전환, 사전 예약제, 프로그램 운영 및 생상품 판매, 마을만들기 연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정원주들의 정체성 확장, 사회적 인정 경험, 공동체 연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객으로 인한 피로감이라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나타났다. 이런 범주는 최종적으로 “사적 공간의 공공화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로 통합된다.

4.1. 인과적 조건

정원주들이 정원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정책적 권장, 개인적 성취감, 그리고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산림청에서 2021년 제2차 정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등록 개소를 늘리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2021년 이후로 민간정원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5 참조). 정원주 중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설득과 추천으로 민간정원을 등록한 케이스들은 이러한 정책적 권장이 정원을 개방하게 된 배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참여자는 정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개방을 택하고, 민간정원에 등록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걸 나 혼자 보고 있기는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 지금 꽃이 없어서 그렇지 한 열흘만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가을까지 꽃 천지가 된 건데..”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뭔가 이제 뜻을 이루고 싶지만, 하루루 온 길은 아니구나..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민간정원이 되어서 그나마 브랜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민간정원이 됐을 때는 은근히 민간정원의 타이틀이 그래도 누군가가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매년 지원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정원주를 보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과 달랐음도 알 수 있는 진술이다.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죠. 순천정원박람회 국가에서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없고 민간정원 되니까 그나마..”

“민간 정원으로 등록을 해줬으니까, 도청은 몰라도 군 차원에서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매년 지원이 되길 바랐죠.”

“민간정원이 되었는데, 지원을 더 해줘야 해.”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은 정원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4.2. 맥락적 조건

정원주의 경험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원의 특성, 가족의 태도, 지역사회의 문화적 분위기,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민간정원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곳은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 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며 힘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만난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고 또 그 친구가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녹지과에서 연타이 왔는데 이게 녹지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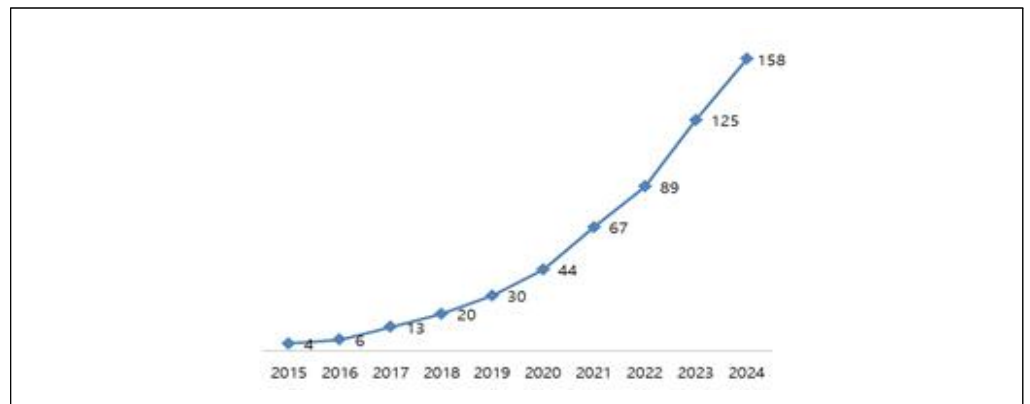


Figure 5. Number of registered private gardens
Legend: — cumulative number

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작년에도 왔다 가고 재작년에도 왔다 가고 아무리 왔다 가도 홈페이지에 만들지도 않아.”

가족이나 마을의 지지가 있는 경우 정원주는 좀 더 개방이나 운영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혼자 관리하거나 향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정원주는 정원의 지속성 여부에 갈등을 겪었다.

“저도 아내랑 얘기 나누는데, 제가 조금만 아파도 여기는 황무지가 될 거다. 자식들은 다 다른 일들을 해요. 주말에 쉬어도 일해달라고 못 하겠어요. 집사람도 아들한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정원이 영원히 운영될 수가 없어..”

“남편이 (민간정원 등록된 걸) 좋아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일등 공신은 저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이 정원이 그냥 제 성격으로 막 이렇게까지 안하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관리는 혼자 하거나 동네 분들께 손을 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적 조건들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4.3. 중심 현상

정원 개방 과정에서 정원주들은 공통적으로 양가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정원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문객 증가, 타인의 평가, 고된 정원 일 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 오고 가는 것이 보이고 소통이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고..”

“사람과의 교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정원을 만들면 그 보람이 뭐냐 와서 같이 얘기하고 또 즐거워하고 꽃 보고 같이 얘기하고 얼마나 그거 좋은 그래서 이 사람과의 교류 이게 정원의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마을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정원이 또 있고 또 있어서 정원이 1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었을 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축제하는 거예요... (중략)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마치 이 축제하는 기간에 옥수수 칠아... 이곳이 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죠.”

위처럼 개방 이후 사람들과의 소통이 증가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반면, 아래처럼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 안 예쁜 나무를 막 이런 데다가 꽃아놓고 그래 이런 거 왜 이렇게 꽃이 없어 그러니까 정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인 가족적인 공간이 지금 타이틀을 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여러 타 지역에서 투어를 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의무감이 좀 생긴 게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멀리서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관광객이) 새벽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원래 부지 부지런하셔서 새벽같이 오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모든 꽃을 다 따고 모든 나무를 다 잡아 당겨서 흔들고, 개울에 돌 던지고... 그래서 통제가 안 되더군요. 이게 무슨 체험 삶의 현장, 놀이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꽃 다음은 열매잖아요. 모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민간정원의 애로점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육체 노동이 수반돼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서서 입으로는 없어 없어 반드시 움직여야 돼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월 생계비 지출은 나가는데 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일 어려워..”

“이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저희들로 봐서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화장실도 더 지어야 되고 또 장도 해야 되고 그 손님들의 일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돼.”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 경험들을 경험하며 양가적 감정을 느끼는 정원주들의 진술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이중적인 진술은 양가적인 정원주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가 완전 활성화 되어야했는데 근데 너무 또 유명해져도 안 되는..”

4.4. 중재적 조건

정원 개방 과정에서 양가적 경험을 한 정원주들은 지자체의 지원, 정원 관련 네트워크들, 개인 성향 같은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여 정원주들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거기도 상치를 너무 많이 입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 있어. 목까지 차 있어. 선생님 선생님 열지 마세요. 뭐 하러 열어요? 그 사람들 열어봤자 선생님 단물만 빨아가요.”

“그 언니(다른 정원주)는 그 사명감이 있어요. 정원을 되게 일찍 했잖아요. 한 30년 됐거든요. 우리가 민간정원의 분위기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 줘야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그렇게 해서 정원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다면 내 한번 기꺼이 내가 희생하지. 그 사명감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좀 편안하게 하려 했는데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조직에 얽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료 문제도 굉장히 저희들이 보면 다른 데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나까.. 또 싸게 하면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비싸게 받으면 또 원래 마음하고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도 좀 있고.”

정원주들은 민간정원의 정원주들의 모임인 민간정원협회나 정원 관련 잡지사인 월간가드닝 같은 네트워크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었다. 식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지식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다만, 내향성이 강한 정원주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얻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입장료의 경우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곳과 비슷하게 맞추려 노력하는 등 정보의 교류가 영향을 끼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5. 전략과 상호작용

정원주들은 중심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였던 정원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정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관련 생산품 또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것 등이 있었다.

“식물심기라든가, 주로 식물심기, 염색은 간단한 염색.”

“정원 음악회를.. 그다음에 이제 그날 행사를 하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특산물도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많은 관광객 방문에 지친 정원주들은 방문객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택하거나, 사전 예약제로 변경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여기에 너무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몰려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입장료가 장수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토·일 이렇게 개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사전에 전화하는 분만..”

그리고 정원을 포함한 마을 전체를 엮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로컬푸드를 판매하게 하는 등 마을단위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 정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마을 길 청소라든지 마을주민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해요. 예를 들어 로컬푸드를 파는 것들.. 할머니들도 6~70대고 올해는 8~90대 할머니들에게도 하고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하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마을에 마을 전체가 정원으로 만들어질 날이 오게끔.. 가정집마다 만들

어 낸다면은 이런 면은 대나무 울타리도 있을 끼고 돌담 울타리도 있을 거고 장미꽃 울타리도 있을 거고... 재미나게 각 집마다 해놓으면 둘러보면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같이 묶여진 섹터가 돼서... 이제 노인 일자리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4.6. 결과 및 핵심 범주

전략의 실행 결과는 긍정적·부정적으로 양분되었다. 긍정적으로는 정원주가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의 실행을 했음에도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방문객으로 인한 피로감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핵심 범주는 “사적 공간의 공공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정원이라는 사적인 공간이 공공에게 개방되면서, 정원 개방이라는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복합적인 배경과 과정들,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존재하는 패러다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사적 공간이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되는, 보다 동적인 사회적 과정이자 정원주들의 균형적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원 개방 경험을 근거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인과적 조건, 현상, 전략과 상호작용, 결과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정책적 권장”, “개인의 성취감”,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방된 개인 정원들은 “정원의 특성”이나 “가족의 태도”, “지역사회의 분위기”, “지자체의 적극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중심 현상을 형성했다. 중심 현상은 “애착심”과 “자부심”, “주변의 인정”, “소통이 늘어나는 경험” 등 긍정적 경험과 “타인의 평가에 상처”, “방문객 증가로 인한 피로감”, “타인의 평가로 인한 피로감”, “노동의 힘듦”, “정원 훼손”, “경제적 어려움”, “기반 시설 부재로 인한 문제” 등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양가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지원”, “정원 관련 네트워크들”, “개인 성향” 같은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여 정원주들의 상호작용 및 전략에 영향을 끼쳤다. 정원주들은 중심 현상에서 겪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료 전환”, “사전 예약제”, “프로그램 운영 및 생산품 판매”, “마을 만들기 연계” 등의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정원주들의 “정체성 확장”, “사회적 인정 경험”, “공동체 연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객으로 인한 피로감”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원이라는 사적 공간이 공공에 개방되는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균형적 조율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정원 제도라는 단일사례를 연구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추후 국내외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사적 공간의 공공화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더해 민간정원이 제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그 제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1. 네이버 표준대국어사전

주 2. 영국의 St. James's Park과 Hyde Park은 왕실의 사냥터였다가 17세기 공원으로 개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 3. 런던 스퀘어는 17세기 상류층을 위한 도심형 주거단지로 영주, 개발자, 건축가에 의해 기획, 설계, 개발되어 18세기에 본격적으로 확산, 19세기 말까지 런던 도심의 주거단지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17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런던의 스퀘어는, 중심의 정원을 건물과 도로가 사면으로 둘러싸는 공간구조로 되어 있다. ‘스퀘어’는 중심의 정원, 사면의 건물 및 순환도로 일체를 지칭하며, 놓여진 주변 도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스퀘어 건물의 주소 체계, 도로명은 이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와 중심 공간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원 기능의 스퀘어와 광장 기능의 스퀘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김현준, 2023)

주 4. National Garden Scheme(<https://ngs.org.uk/>)

주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 외에도 법인·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은 민간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정원을 개방하게 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정원 제도 중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References

1. 권향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 회보 20(2): 181-216.
2. 권향원, 최도림(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3. 김영천(2011)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제2판). 아카데미프레스.
4. 김우주, 이차희, 성종상(2018) 근린 생활권 공원에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세종시 '참샘을 사랑하는 모임'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6(2): 37-51.
5. 김은영, 홍윤순(2019) 근거이론을 활용한 설계자의 경의선숲길공원 사후평가: 연남동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조경 학회지 47(3): 39-48.
6. 김지나(2019)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현준(2023) 런던 스퀘어 정원의 '공공 개방'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4(4): 023-035.
8. 박성욱, 홍윤순, 김우진(2022) 근거이론을 통해 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의 함의. 한국조경학회지 50(6): 84-95.
9.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025) 민간정원 조성 및 운영 길잡이. 더존데이터.
10. 서준원, 조경진(2021)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경관 읽기: 주민 심층 인터뷰 및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한국경관학회지 13(2): 1-23.
11. 신수임(2022) 사회주택을 통해 구현된 공공성 가치의 확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유기웅(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13. 이동수 편(2015) 정부의 재발견: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인간사랑.
14. 이병택(2011)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 『아테네 헌정』을 중심으로. 오토피아 26(1): 5-28.
15. 이보현(2024) 산림청 등록 민간정원의 공공적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정, 권대근, 김사랑(2021) 전라남도 민간정원의 입지 특성 및 도입프로그램 분석. 남도문화연구 44: 575-600.
17. 이차희(2017)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과 경관정체성 연구: 경기도 이천시 산 수유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이차희, 탁영란, 김민서, 손용훈(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양평군-이천 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19. 임의영(2018)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정부학연구 24(3): 1-42.
20. 조대엽(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 조. 한국사회 13(1): 3-62.
21. 조성아, 성종상(2019) '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7(6): 129-138.
22. 조승래(201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3. 차동욱(2011) 공(publicness)와 사(privateness)의 대립 속에 묻혀버린 공(commonness): 프랑스 혁명기의 주권 론과 헌법담론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3): 5-26.
24. 최귀순(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시간호학회지 14(1): 82.
25. 최지영(2012)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최태현(2019) 공과 공유의 사이에서: '작은 공유'들의 공공성 가능성의 고찰. 한국행정학보 53(3): 1-27.
27. 하버마스, 위르겐(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28. 홍승훈, 이혁재(2025) 민간정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7-55.
29. 홍윤순, 박재민(2016) 근거이론을 활용한 조경현상설계의 사후평가: 광교호수공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4(5): 92-102.
30. 황기원(1987) 정원의 원형 시론. 환경논총 20: 85-97.
31. 황주영(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히라타 후지오, 손용훈(2015) 지방도시에서 주택정원의 활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환경논총(Journal of

- Environmental Studies) 56: 67-73.
33. Benfield, R.(2013) Garden tourism. CABI.
 34. Čakovská, B.(2018) Garden tourism: Reasons for opening private gardens in the UK National Garden Scheme. *Current Issues in Tourism* 21(12): 1344-1348.
 35. Charmaz, K.(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36. Corbin, J. and A. L. Strauss(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37.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학지사.
 38. Glaser, B. G.(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Sociology Press.
 39. Glaser, B. G. and A. L. Strauss(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Aldine.
 40. Holton, J. A.(2007) The Coding Process and Its Challenge. In A. Bryant and K. Charmaz 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pp. 265-290.
 41. Kim, S., J. Sung, Y. Hamm and S. Cho(2022) A garden network system for sustainable garden tourism in South Korea.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74: 127662.
 42. Lawrence, H. W.(1993) The greening of the squares of London: Transformation of urban landscapes and ideal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1): 90-118.
 43. Lipovská, B.(2013) The fruit of garden tourism may fall over the wall: Small private gardens and tourism.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114-121.
 44. Miles, M. B. and A. M. Huberman(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age Publications.
 45. Olsen, D. J.(1976) *The Growth of Victorian London*. Holmes & Meier.
 46. Saldaña, J.(2012)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Sage Publications.
 47. Schindler, S.(2017) The publicization of private space. *Iowa Law Review* 103: 1093.
 48. Stern, P. N.(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1): 20-23.
 49. Strauss, A. L. and J. Corbin(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50. Strauss, A. L. and J. M. Corbin(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51. National Garden Scheme. <https://ngs.org.uk/who-we-are/who-we-are-and-what-we-do/>